

『옥환기봉』의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이 승 복*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역사 수용 양상의 의미 |
| 2. 삽화적 수용 양상 | 5. 맺음말 |
| 3. 구조화 양상 | |

국문초록

18세기경에 창작된 장편소설인 『옥환기봉』은 광무제의 한실(漢室) 회복 이야기와, 광황후가 폐출되고 음귀인이 황후가 되는 황후 폐립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이 이처럼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글에서는 중국 역사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한실 회복 이야기를 대상으로 그 수용 양상을 살피고, 두 이야기가 어떻게 얽혀 작품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한실 회복 이야기 가운데 기병에서부터 황제 즉위까지의 사건들은 주로 『후한서』와 『동한연의』를, 즉위 이후의 사건들은 대부분 『동한연의』를 통해 역사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실 회복 이야기의 각 사건들은 일부의 내용을 변용하거나 새로운 삽화를 삽입, 혹은 첨가하거나 인물을 매개하거나 또는 시간을 병치하여 황후 폐립 이야기와 직, 간접으로 연관되도록 하고

* 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있다.

이러한 역사 수용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작자가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는 점,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의 부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은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작자의 기본적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한실 회복 이야기에 제시된 광무제의 긍정적인 면모는 황후 폐립 이야기와 결부되어 결과적으로 황후 폐립과 관련된 광무제의 태도와 처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작자의 창작 역량 또한 역사 수용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다. 작자는 한실 회복 이야기를 황후 폐립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함으로써 황후 폐립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조건과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탄탄한 작품 구조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역사를 수용하여 작품화하는 작자의 능력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자의 창작 역량은 물론 당시 고전 장편 소설의 창작 수준과 역사 수용 방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고전 장편소설, 옥환기봉, 후한서, 동한연의, 역사 수용

1. 머리말

18세기경에 창작된 장편소설인 『옥환기봉』은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광무제가 왕망에 의해 무너진 한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곽황후를 폐하고 음귀인을 황후로 세우는 황후 폐립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실(漢室) 회복 이야기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 황후 폐립 이야기는 황실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실 회복 이야기에는 역사적 사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반면 황후 폐립 이야기는 곽후가 광무제의 은총이 쇠하자 자주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단편적인 역사 기록에 작자의 상상

과 허구가 대폭 가미되어 구성되었다.¹⁾ 현재까지의 연구는 허구와 상상을 통해 작자의 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황후 폐립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황후 폐립 이야기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부부 사이의 문제를 둘러싸고 후속 작품들이²⁾ 『옥환기봉』에 대해 제기한 비판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황후 폐립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작품을 구성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인 한실 회복 이야기를 단순히 작품의 배경으로 취급하고 말 수는 없다. 한실 회복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수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황후 폐립 이야기와 어떻게 얽혀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이 작품에 대한 정당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한실 회복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가 수용된 양상을 살핀 다음 이 이야기가 황후 폐립 이야기와 어떻게 얽혀 작품 전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비단 『옥환기봉』이라는 한 작품뿐 아니라 우리의 고전 장편소설에 흔히 보이는 중국 역사 수용의 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된다.

『옥환기봉』의 중국 역사 수용에 대해서는 작품을 구성하는 두 이야기가 『후한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³⁾ 이후 이 작품은 대체로 정보가 중심일 경우에는 『후한서』를, 극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을 위해서는 『동한연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기도 하였다.⁴⁾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해 이 작품이 『후한서』와 『동한연

1) 이에 대해서는 이승복,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2, 465~468면에서 자세하게 검토된 바 있다.

2) 속편인 <한조삼성기봉>과 파생작인 <취미삼선록>, <도앵행>을 가리킨다.

3)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 『선청어문』 28, 서울대, 2000. 3.

4) 임치균, 「18세기 고전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의』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역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제대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내용과 밀착하여 『후한서』와 『동한연의』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수용되고, 작자가 변개시킨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수용과 변개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한실 회복 이야기는 광무제가 장안 유학 후 군대를 일으켜 왕망, 왕랑 등과 전쟁을 치른 다음 황제에 즉위하고, 이어 적미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을 차례로 평정하여 마침내 한 나라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사건들은 일련의 인과적 계기에 의해 밀접하게 연결되기보다는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삽화의 연속처럼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작자가 한실 회복의 역사적 과정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추려서 제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논의의 편의상 광무제의 장안 유학, 기병에서 즉위까지의 과정, 즉위 이후의 사건 등으로 크게 나눠 어떤 사건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수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⁵⁾

5) 『옥환기봉』은 규장각 소장 30권 15책본을, 『동한연의』는 최근 활자화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번역본(『동한연의』, 박재연외 교수, 학교방, 2007)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전하는 『동한연의』 가운데 가장 이른 판본은 1588년에 간행되었다고 하는데(위의 책, 머리말) 허균, 홍만중 등이 이 작품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조선에 수입되어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김중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아세아문화사, 1994 참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동한연의』는 권1말에 “광무 칠년 세지 계묘 밍춘의 시작 하여 계춘 기망 신말의 필서호노라”라는 필사기가 있어 1903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동한연의』 한문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한문본과 번역본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동한연의』, 머리말) 여기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번역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옥환기봉』의 작자가 중국의 역사를 수용한 또 다른 통로로 당시 널리 읽히고 있던 『통감강목』이나 『통감절요』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작자가 작품 속에서 직접 『후한서』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이승복(2000), 168면 참고) 이 글에서 역사서는 『후한서』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삽화적 수용 양상

1) 장안 유학

『옥환기봉』에서 광무제는 장안에서 3년 동안 『상서』를 공부하고 과장에 나아갔다가 분을 못 이겨 왕망에게 활을 쏘았지만 맞히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후한서』 「광무제기」에는 광무제가 “천봉 연간에 장안에 가 『상서』를 공부하여 대략 큰 뜻을 통하였다”⁶⁾ 라는 기록이 있어 실제 광무제가 장안에서 수학하였던 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광무제의 장안 유학에 대한 『후한서』의 기록은 이것이 전부인 데 반해 『옥환기봉』에는 이 부분이 대폭 확대되어 있다. 이것은 『옥환기봉』이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⁷⁾

『동한연의』에서 광무제는 매부 등신의 소개로 등우를, 등우의 소개로 엄광을 만나는데 엄광은 광무제에게 왕망이 설과하니 과거를 보라고 권하였다. 이에 이튿날 광무제는 엄광의 집에서 만난 풍이, 왕패, 그리고 등우와 함께 장안으로 올라갔다. 과장에 나아간 광무제는 왕망을 향해 활을 쏘려했으나 너무 힘껏 시위를 당기는 바람에 활이 부러져 쏘지 못하고 붙잡혔다. 우승상 두옹의 덕으로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광무제의 몸에 금룡이 둘러있었다는 말을 들은 왕망이 광무제를 다시 붙잡으려 했기 때문에 광무제는 이집 저집을 옮겨 다니며 피신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수차 붙잡힐 위기에 빠졌다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상당 부분 『옥환기봉』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한연의』에서 광무제는 장안 저자 거리를 거닐다가 궁궐 문 앞에 이르러 큰 소리로 “조타 ” ”

6) 王莽天鳳中 乃之長安 受尚書 略通大義(范曄 撰, 李賢 等注, 『後漢書』, 경인문화사, 1975, 1면. 이하 면수는 이 영인본의 면수를 따름).

7) 이러한 사실은 임치균이 처음 확인하였다(앞의 글, 137~9면).

원수 갑홀 날이 언제 이실고”⁸⁾라고 외쳐댔다. 이로 인해 엄기라는 사람이 광무제로 오인되어 애매한 죽음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광무제는 자기 부모를 죽인 소현이라는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보검을 뽑아 원수를 갚으려 하기도 하였다. 등우가, 죽이지 말고 쓰지 말라고 한 엄광의 당부를 상기시켜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만 광무제는 또 다시 엄광의 당부를 잊고 왕망에게 활을 쏘려다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한 채 붙잡히고 말았다. 이어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고향에 돌아온 광무제는 “니 이제 남의 망녕된 말 고지 듯지 아니리라”⁹⁾ 라며 농사짓는 데에만 힘을 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자초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한실 회복을 권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망령된 것으로 돌려버리는 광무제의 모습은, 그가 분별력이나 진정한 용기를 갖추고 있기보다는 무모하면서도 나약한 성격의 일면을 지닌 인물로 비쳐지게 한다. 하지만 『옥환기봉』에 제시된 광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옥환기봉』에는 광무제가 궁궐 밖에서 큰 소리를 외치고, 길에서 소현을 죽이려 했던 사건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또 『동한연의』에는 광무제가 왕망에게 활을 쏘려 했지만 활이 부러져 쏘지 못한 것으로 되어있는 데 반해 『옥환기봉』에서는 활이 부러지는 바람에 왕망을 제대로 맞추지는 못했지만 화살이 왕망의 평천관 위에 꽂혀 왕망이 실색하여 엎어지는 것으로 바꾸고, 엄기의 죽음도 이 일로 인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동한연의』에는 광무제가 집으로 오는 도중에 수차례의 위기를 겪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모면한 후 두 형을 만나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옥환기봉』에서는 이러한 위기와 도움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생략하고, 광무제가 집으로 오다가 큰형 유연을 만나 왕망을 죽이지 못한 것을 한하며 그

8) 『동한연의』, 박재연의 교주, 학고방, 2007, 16면.

9) 위의 책, 27면.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변개하였다.

이에 따라 『옥환기봉』에 제시된 광무제는 무모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거나, 나약한 의지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 의분을 느끼며 한실 회복의 의지를 늦추지 않는 존재로 재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에 제시된 광무제의 모습이 한실을 회복한 영웅의 그것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광무제의 영웅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생략과 변개를 통해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한연의』는 무슨 이유로 광무제가 장안에서 공부하였다는 역사서의 단편적인 언급을 대폭 확대하면서까지 광무제를 무모하고도 나약한 존재로 그렸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는 장안 유학 부분이 『동한연의』와 『옥환기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동한연의』에서 엄광은 천문을 보며 광무제를 상징하는 자미성을 이십팔수가 보호한다고 하면서 광무제가 장안에 가더라도 이 별들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이십팔수는 광무제를 도와 대업을 이룰 장수들을 가리키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광무제의 장안 유학 부분에서는 앞으로 광무제를 도울 28명의 장수¹⁰⁾ 가운데 10여명과, 28수에 들지는 않지만 앞으로 광무제를 도울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광무제와 군신 관계를 맺으면서 광무제를 돕기도 하고, 광무제와 직접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과장에서 무용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동한연의』의 장안 유학 부분은 광무제라는 인물의 제시보다는 광무제를 돕는 인물들의 소개를 위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

10) 『동한연의』와 『옥환기봉』에서 광무제를 도와 중흥의 공을 세운 28명의 장수들을 28수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늘의 28수와 상응한다고 한 것은 당시부터 이야기되던 것이다(『후한서』, 『朱景王杜馬劉傳堅馬列傳』, 논평부, 198면). 28수는 구체적으로 등우, 마성, 오한, 왕양, 가복, 진준, 경감, 두무, 구순, 부준, 잠팽, 견심, 풍이, 왕패, 주우, 임광, 채준, 이충, 경단, 만수, 합연, 비융, 요기, 유식, 경순, 장궁, 마무, 유융 등을 가리킨다(『통감절요』4,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07, 19면 참고).

럼 이야기의 초점이 광무제를 돕는 인물들의 제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는 광무제가 상대적으로 무모하고 나약한 존재로 그려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옥환기봉』에서는 어떠한가. 『옥환기봉』에서 광무제의 장모 곽주는 광무제에게 태학에서 공부하고, 도와줄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장안으로 갈 것을 권하였다.¹¹⁾ 또 엄광은 장안에서의 길흉을 묻는 광무제에게 천하의 장사들이 광무제를 한번 보면 따를 것이라며 왕망이 설과한 것은 인재를 뽑아 주인을 만나게 하는 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한연의』에서는 장수들이 광무제와 결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각각의 장수들이 급제를 하거나 장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장면을 제시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옥환기봉』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광무제가 교장 문밖에서 그들과 결교하여 후일을 기약하였다고 함으로써 광무제가 지기상합한 뛰어난 장수들을 얻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동한연의』는 광무제의 장안 유학을 통해 광무제보다는 28수의 중요 인물들을 소개하는 데 비중을 뒀으로써 광무제의 성격이 무모하고 나약하게 비쳐질 수 있도록 그랬다면 『옥환기봉』의 작자는 장안 유학 부분의 초점을 일관되게 광무제에 맞춰 한실을 회복한 영웅의 면모에 어울리도록 광무제의 성격을 형상화하면서 이 부분을 광무제가 후일 자신을 도와 대업을 이룰 장수들을 얻는 과정으로 구체화하였던 것이다. 이는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변개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1) 『동한연의』에서는 엄광이 광무제에게 장안으로 갈 것을 권했지만 <옥환기봉>에서는 곽주가 권한 것으로 바뀌어놓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

2) 기병에서 즉위까지의 과정

(1) 기병과 초기 전투

역사적으로 광무제는 이통이란 사람의 권유로 기병한다.¹²⁾ 처음에는 승리를 거두다가 소장안 전투에서 왕망군에게 대패한다. 이후 다시 승리를 거두고 경시제를 추대하여 황제로 삼는다. 이러한 기병과 초기 전투의 과정에 대해 『동한연의』에서는 광무제가 군사를 모으고 이통의 도움으로 병장기를 마련하려다 위기에 빠지는 기병 과정과, 잠쟁과 대결하며 극양성을 빼앗는 전투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고 흥미롭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옥환기봉』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대신 기병 과정에서는 광무제의 큰형인 유연이 군사를 모으자 사람들이 “익승 [유연의 자(字)]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¹³⁾ 라며 숨었다가 광무제를 보고는 “한을 다시 흥히리도다”¹⁴⁾ 라며 투군하였고, 승전을 해서 얻은 재물을 유씨 종족들이 모두 가져가 군사들이 불평하자 광무제가 그것을 다시 거둬 군사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극양성 전투도 “국양을 쳐서 익고고”¹⁵⁾라는 한 마디 말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후한서』 「광무제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이 부분에서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에 제시된 대결과 전투 장면의 흥미보다 역사 기록과 그 속에 부각되어 있는 광무제의 인품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말해준다.¹⁶⁾

12) 이통은 이후 광무제의 누이인 백희, 곧 영평공주의 남편이 된다(『후한서』, 「李王鄧來列傳」 중 「李通傳」, 144면). 하지만 『옥환기봉』에서는 영평공주를 태원처사 주당의 며느리로 설정하고 있다.

13) 『옥환기봉』 권4, 13면.

14) 상동.

15) 『옥환기봉』 권4, 14면.

16) 이 부분에서 역사서의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은 광무제의 기병에 대한 숙부 유량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유량은 광무제가 기병한다는 사실을 고하자 대로하여 꾸짖었다(『후한서』 「宗室四王三侯列傳」 중 「趙孝王良傳」, 140면). 『옥환기봉』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권4, 13면) 『동한연의』에서 유

소장안 전투는 초기에 승리를 거두던 광무제가 처음으로 패한 싸움이다. 『후한서』에는 이때 광무제의 누이인 유원과 중형인 유중이 해를 당했고, 종실 수십 명이 죽었다고 기술되어 있다.¹⁷⁾ 이를 바탕으로 『동한연의』에서는 광무제가 잠팽에게 패하여 달아나다 말이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자 유중이 자기 말에 광무제를 태워 보내고 자기는 전사하고 말았으며, 어렵게 전장을 벗어난 광무제는 숙부 유량을 만나 잠팽이 유씨 종족 삼백여인을 죽였다고 크게 통곡하였다고 하였다.¹⁸⁾

그런데 『옥환기봉』에서는 유중이 광무제에게 자기의 말을 타라고 하였으나 광무제가 굳이 사양하자 유중도 말을 타지 않고 싸우다가 죽은 것으로 바꾸고, 누이 유원은 이때 절을 지켜 우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유중이 말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죽었다는 『동한연의』의 내용을 수용하되 형제간의 우애와 광무제의 인품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내용을 변개하는 한편 『후한서』를 수용하여 누이 유원의 죽음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옥환기봉』에 나타난 광무제의 기병과 초기 전투에 관한 부분은 『동한연의』를 참고하되 『동한연의』보다는 『후한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에 제시된 전쟁 장면의 흥미보다는 역사적 사실 내지는 그것을 통한 광무제의 인품 제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량은 한실 강산을 회복할 사람이 없음을 서러워하는 강개지사로 제시되어 있다 (권1, 11면).

17) 소장안 전투에서 유중과 유원이 죽은 사실은 「宗室四王三侯列傳」중 <齊武王縝傳>에 제시되어 있다.

18) 잠팽은 극양을 지키다가 한나라 군대에게 패배하고, 다시 완성을 지켰으나 식량이 떨어져 항복한 이후 광무제의 대업을 도운 인물인데(「馮岑賈列傳」중 <岑彭傳>) 역사서에는 잠팽과 광무제의 대결에 대한 언급이 없다. 『동한연의』에서는 잠팽과 광무제의 대결을 자잘한 사건들을 거쳐 소장안 전투로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옥환기봉』에서는 이를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는 작자가 이미 장안 유학 부분에서 광무제와 잠팽이 서로 결교하였다고 하고서 나중에 그들이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 있다.

(2) 곤양성 전투

광무제가 기병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그 위명을 결정적으로 높인 계기가 된 것이 곤양성 싸움이다. 이에 대해서는 「광무제기」에서도 자세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왕망의 대군이 곤양성으로 몰려오자 성 안에 있던 광무제가 위협을 무릅쓰고 직접 성 밖으로 나가 여러 곳에서 군사를 모아 돌아오면서 선봉에서 왕망의 군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먼저 『동한연의』를 보면 왕망의 대군에게 포위된 채 식량이 떨어지자 광무제는 장수들을 거둬 항복하게 하여 위기를 극복하려 하기도 하고, 경시제와 적미에게 구원을 청하기도 하면서 요술을 부리는 왕망의 장수 거무패와 대결하여 일진일퇴한다. 광무제의 꿈에 어떤 부인이 상제가 보내는 양초를 가져왔다고 한 것이 현실이 되어 군사들이 허기를 면할 수 있게 된 다음 광무제는 직접 성 밖으로 나가 구원병을 얻어오고, 또 마원을 청해 거무패의 요술을 깨뜨림으로써 왕망의 대군을 물리친다. 이처럼 『동한연의』는 광무제가 위기를 맞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여러 사건들을 거둬 제시하고 전투 장면들을 간간히 삽입하면서 곤양성 전투를 상당히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그려가고 있다.

그런데 『옥환기봉』에서는 본격적인 싸움이 전개되기에 앞서 왕망의 장수 엄우가 광무제가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광무제를 칭찬했다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어 왕망의 대군을 두려워한 여러 장수들이 처자를 생각하여 흩어지려 하자 광무제가 “이제 군스와 낭축, 적고 적세 강디흐니 힘을 아올나 막으면 가히 성공호려니와 만일 분손코즈 흐면 형세 구전치 못흐미 …… 이제 힘을 다호여 디공을 일우리라”¹⁹⁾라며 장수들을 독려했다고 하였다. 적장 엄우가 광무제를 칭찬

19) 『옥환기봉』 권4, 36~7면.

하고, 광무제가 제장을 독려했다는 이 부분은 「광무제기」의 서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후 식량이 떨어져 상황이 위급해졌을 때 상제의 명을 받은 부인이 양식을 전하러왔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 군사들이 기갈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어 왕망군의 거무패가 광무제의 장수인 질운과 대적하며 요술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동한연의』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질운과 거무패의 싸움에 이어 양진영이 서로 접전을 벌이게 되는데 광무제가 직접 나서서 적병 수십급을 베자 여러 장수들이 “뉴장군이 정(평)성 쇼격을 보면 겁히더니 이제 큰 도적을 보미 날늑이 고히 흐다”²⁰⁾라고 하였다. 또 광무제는 왕망군이 점령하고 있던 완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적병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광무제의 활약은 「광무제기」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어 광무제는 엄광이 천거한 마원을 청해 거무패의 요술을 제압하여 마침내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동한연의』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옥환기봉』의 곤양성 싸움에는 『후한서』 「광무제기」와 『동한연의』의 내용이 교대로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광무제기」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적장이 광무제를 칭찬했다거나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여 장수들을 독려했다거나 선봉에 서서 직접 적병을 무찔렀다는 사실들을 빠뜨리지 않고 제시하여 광무제의 인품과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비해 『동한연의』의 내용 가운데에서는 복잡한 여러 사건들은 제쳐놓고, 상제가 식량을 보내주었고, 거무패의 요술을 마원을 청해 제압했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는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에 제시된 다양한 전략과 전투보다는 광무제가 천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인해주는 사건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마원이라는 인물을²¹⁾ 부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20) 『옥환기봉』 권5, 2면.

(3) 왕랑과의 대결

광무제가 곤양성에서 대승을 거두고 유연이 완성을 함락시켜 광무제 형제의 위명을 높아지자 이를 경계한 경시제가 유연을 죽인다. 하지만 광무제가 이에 대해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자 경시제는 광무제를 파로 대장군에 무신후를 봉하고, 낙양의 궁부를 수리한 다음 하복을 진무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후한서』, 『동한연의』, 『옥환기봉』 등에 대체로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다.²²⁾

이후 진행되는 하복 진무는 광무제가 나름의 세력을 규합하여 황제에 즉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사건이 왕랑과의 대결이다. 먼저 『후한서』의 「광무제기」와 열전에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자.

광무제는 하복을 순행하면서 왕망의 가혹한 제도를 철폐하고 한나라의 관직을 회복하여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유림이 왕랑을 천자로 삼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자 광무제는 길에서 먹고 자며 고생을 하였다. 무루정에서는 풍이가 올리는 두죽으로 허기를 달렸고, 요양에 이르러서는 관속들이 너무 굶주리자 거짓으로 왕랑의 사자라며 음식을 얻어먹다 의심을 받아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다. 왕랑의 군대에 쫓기면서 호타하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침 강에 얼음이 얼어 간신히 위기를 면할 수 있었고, 남궁에서 길가 빈집에 들었을 때에는 풍이가 쉼

21) 마원은 농우와 교지국을 평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딸은 광무제의 며느리가 되어 후일 명덕마황후가 된다. 마원에 대해서는 농우와 교지국 평정을 다룰 때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22) 유연은 부장 유직을 힘써 구하다가 같이 죽음을 당했는데 『후한서』에서는 유직이 경시제가 내리는 관직을 받으려 하지 않아 죽게 되었다고 했고(『宗室四王三侯列傳』, 중 <齊武王續傳>), 『동한연의』에서는 유직이 경시제의 신하들이 광무제를 참소하는 것을 보고 경시제를 꾸짖다 죽게 되었다고 했으며(권2, 67면), 『옥환기봉』에서는 광무제의 제장들이 광무제와 같은 영웅이 경시제에게 굽히는 것을 한한다는 소식을 들은 경시제가 유연의 부장인 유직을 죽이려 했다고 하여(권7, 1면) 세부적인 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을 가져오고, 등우가 불을 지피자 옷을 말리면서 풍이가 올리는 보리밥으로 요기를 하였다. 이어 하박성에 이르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지나던 백의노인의 지시에 따라 신도군에 가서 태수 임광의 도움으로 군사 사천여인을 얻어 당양, 세현 등을 쳐 항복받음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후 왕랑과 다시 대결을 벌여 마침내 왕랑을 잡아 처형하고, 사람들이 왕랑과 주고받은 문서를 모두 불살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²³⁾

『동한연의』는 이러한 실제 역사적 전개 과정을 수용하면서도 허구적인 내용들을 덧붙이고 있다. 곧 광무제가 하북 진무 전에 장안을 공격하여 왕망을 붙잡아 처형하였다고 하고, 경시제 측에서 광무제가 하북을 진무하기 전에 가짜 광무제를 먼저 보내 인심을 잃게 하였을 뿐 아니라 경시제가 낙양태수에게 밀명을 내려 광무제를 살해하려 했다고 하였다. 또 광무제가 왕랑이 성제의 아들이 아니라며 유립을 설득하려다 실패한 다음 왕랑군과 일진일퇴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광무제가 굶주림과 추위로 인한 고난을 겪고 나서 왕랑과 전투를 치를 때 밤에 공중에 한 여인이 나타나 자기가 호타하 신령이라며 왕랑을 추격하지 말라고 하자 요기가 활로 쏘아 잡아보니 왕랑의 부인이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신도군에 간 것이 백의노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광무제기」의 내용은 생략하고 있다.

『옥환기봉』에서는 우선 왕망이 전쟁에서 패한 후 술만 마시고 정사를 전폐하자 장안 인근의 호걸들이 왕망을 죽였다고 하여 왕망의 몰락과 죽음을 『동한연의』와 달리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도록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어 경시제측에서 가짜 광무제를 미리 하북에 보냈다가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 했다는²⁴⁾ 『동한연의』의 내용은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23) 무루정에서 풍이가 두족을 올리고, 남궁에서 풍이가 다시 보리밥을 올렸다는 사실은 「馮岑賈列傳」중 <馮異傳>에 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 다른 내용은 「광무제기」에 있다.

24) 『옥환기봉』의 이 부분에는 장의 차착과 누락이 있어 경시제 측에서 광무제를

그러면서도 뒤를 이어 『동한연의』에 제시된 왕랑과 일진일퇴하던 전쟁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후 요양에서 밥을 얻어먹다가 의심을 받아 위기에 빠질 뻔했던 일은 『동한연의』와 「광무제기」 모두에 제시되어 있으나 광무제가 위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광무제기」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²⁵⁾ 그리고 풍이가 올린 보리밥을 반만 먹고 남은 것으로 장수들을 요기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동한연의』와 같다. 이어 「광무제기」를 수용하여 백의노인의 지시로 신도군에 도착하여 군사 사친인을 얻어 당양과 세현을 항복받았다고 하였고, 왕랑을 물리치는 과정에서는 『동한연의』를 수용하여 환술을 부리는 왕랑 부인을 잡아 처형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옥환기봉』은 『동한연의』에 제시된 광무제의 왕망 처형과 같은 역사적 사실의 왜곡을 거부하고 『후한서』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한연의』에 제시된 경시제 측의 살해 음모를 수용하여 광무제가 후일 경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즉위한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광무제가 왕랑 부인의 환술을 깨뜨린 부분을 받아들여 광무제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려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한연의』에 보이는 왕랑군과의 전투 장면들을 대거 생략한 것을 보면 작자는 그러한 장면들에는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4) 황제 즉위

해치려 한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나 권7에 제시된 광무제와 자객의 대화를 보면 『동한연의』에서 광무제를 해치려 한 경시제 측의 음모가 『옥환기봉』에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5) 『동한연의』에서는 광무제와 그 관속들이 밥을 먹다가 요양 현관 고훈에게 쫓겨 황망히 달아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광무제기」와 『옥환기봉』에는 요양 아전들이 광무제가 왕랑의 사자가 아닌 줄 짐작하고 북을 치며 거짓으로 왕랑의 장군이 온다고 떠들자 광무제가 급히 달아나려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와 왕랑의 장군을 청한다며 한참 동안 그곳에 있다가 떠났다고 기술되어 있다.

먼저 「광무제기」에 제시된 광무제의 즉위 과정을 살펴보자. 광무제가 왕랑을 토벌하자 경시제는 광무제를 소왕으로 봉하면서 군대를 해산하고 장안으로 돌아오라고 명하였다. 하지만 광무제는 하북이 미처 평정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경시제의 명을 받들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광무제와 경시제는 서로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광무제가 동마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을 정벌하고 경시제의 공격을 물리치자 마무가 앞장서서 황제에 즉위할 것을 상주하였지만 광무제는 참하겠다며 완강히 거절하였다. 이어 중산에 이르렀을 때 제장이 채차 즉위를 청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남평극에 도착하였을 때 제장이 또 다시 청하고 경순이 극간하자 생각해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호에 이르렀을 때 강화가 광무제의 즉위를 암시하는 예언서인 적복부를 받들어 올리고 신하들이 다시 주청하자 광무제가 마침내 황제에 즉위하였다.

『동한연의』의 경우 광무제가 수차에 걸쳐 즉위 요청을 거절한 것은 「광무제기」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시기나 과정은 사뭇 다르다. 우선 광무제가 장안을 공격하여 왕망을 처형하였을 때, 그리고 왕랑을 거의 궤멸 상태로 몰아넣었을 때 장수들이 거듭 광무제를 황제로 삼으려 했다고 하였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시제가 군대를 보내자 광무제는 스스로 손을 묶고 갑옷을 벗은 채 죄를 청하려 하기도 하고, 경시제가 다시 조서와 사약을 보내 조정에 들어오든지 약을 마시고 죽든지 하라고 하자 약을 마시려 하기도 하였다. 이후 경순이 즉위를 권하는 표를 올리는 등 제장이 다시 즉위를 요청하자 광무제는 왕랑을 파한 후 즉위하더라도 무엇이 늦겠느냐고 하였다. 하지만 광무제는 제장들이 몰래 즉위식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는 혼자 군중을 빠져나와 경시제가 있는 장안으로 가다가 광무제를 황제 삼는다는 말을 하는 두 사람을 칼로 치고 보니 석인이었다. 쫓아온 장수들의 권유로 되돌아가 왕랑을 완전히 토벌하자 경시제가 광무제를 소왕으로 봉하며 돌아오라 하였다. 이때 제장들이 다시 즉위를 권하자 사방이 편해진 후 즉위해도 더디지 않다고 하면서

경시제에게는 하복을 다 평정한 후에 돌아가겠다고 회보하였다. 이후 동마를 정벌하고, 경시제군과 전투를 벌인 후에 제장들이 다시 즉위를 청하고, 경순과 풍이가 나서서 또 다시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가 강화가 적복부를 받들어 올리고 군신이 청하자 마침내 황제에 즉위하였다.

이를 보면 『동한연의』는 실제보다 제장들의 즉위 요청 시기를 훨씬 앞당기고, 광무제가 그렇게 오래 동안 반복된 즉위 요청들을 거절하면서 경시제에 대해 신하의 예를 다하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석인이 즉위 운운했다는 초월적인 현상을 들어 광무제의 즉위가 천정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결국 『동한연의』는 광무제가 황제 되기에 충분한 인품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즉위가 천명에 따른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즉위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옥환기봉』에서도 광무제는 제장들의 수차에 걸친 즉위 요청을 거절하다가 결국 적복부로 인해 황제에 즉위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무제기」에서와 같이 광무제가 경시제군을 물리쳤을 때 처음 제장들이 즉위를 청하였다고 하면서 이때 즉위를 요청하는 마무의 말을 「광무제기」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²⁶⁾ 이후 중산과 남평국에서 제장이 다시 즉위를 청하였다고 하여 『동한연의』가 아닌 「광무제기」에 제시된 실제 역사적 사실을 마찬가지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옥환기봉』은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아울러 수용하고 있다. 곧 제장들이 천추대를 쌓고 광무제 모르게 황제 추대를 준비한다는 병졸들의 말을 듣고 피신하다 석인을 칼로 쳤다거나, 경시제가 군대를 보내자 청죄

26) “마뉘 먼저 나와와 왈 천하의 님군이 업스니 만일 성인 잇서 세로 니러나면 비록 중이 정승이 되고 손지 장쉬 되여도 오히려 능히 업서 더욱 반호가 저히히느니 더장이 비록 겹피로 웃듬히시느 종묘와 스직을 어이 현실인이잇가 맛당이 세(계)로 도라와 늑흔 위의 즉히시고 정벌을 의논홀 거시여늘 이제 엇지 도적도로 섬기오리니가(권6, 52~3면)”는 『광무제기』의 “馬武先進曰 天下無主 如有聖人承敎而起 雖仲尼爲相 孫子爲將 猶恐無能有益 反水不收 後悔無及 大王雖執謙退 柰宗廟社稷何 宜且還薊卽尊位 乃議征伐 今此誰賊而馳驚擊之乎(『후한서』, 6면)”를 번역한 것이다.

하러 했다거나, 경시제가 들어와 조회하든지 죽든지 하라며 짐주를 보내자 그것을 마시려 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²⁷⁾ 결국 『옥환기봉』은 「광무제기」에 바탕을 두면서 광무제의 인품과 자질을 보여주는 『동한연의』의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옥환기봉』은 광무제가 경시제 생존시에는 즉위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설명을 추가하여 이러한 광무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3) 즉위 이후의 사건

광무제는 황제 즉위 후 낙양성을 지키고 있던 경시제의 장수인 주유의 항복을 받아 도읍까지 정했지만 금방 모든 세력을 규합하여 안정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황제를 칭하거나 한 지방에 웅거하며 나름의 세력을 갖춘 존재들이 여전히 광무제를 위협하고 있었다. 광무제가 완전한 현실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위 이후에도 거쳐야 할 난관이 많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옥환기봉』에서 다루고 있는 즉위 이후의 중요 사건들은 적미군 진압, 농우 평정, 서촉 평정, 교지국과 무릉 평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적미는 왕망에 대항하여 일어난 농민 반란군으로 눈썹을 붉게 물들였기 때문에 적미라고 불렀던 집단이다. 이들은 유분자를 황제로 추대하고 장안에 두 번씩이나 들어와 약탈을 일삼았다. 광무제는 등우를 보내 이들을 막다가 마침내 친정하여 항복받았다. 『동한연의』는 이러한 과정을 『후한서』의 『유분자전』과 『등우전』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들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동한연의』와 『옥환기봉』에는 경시제가 적미군에 쫓겨 촌락에 유리할 때 광무제가 경시제에게 회양왕을 봉한다며 내린, 서로 같은 내

27) 규장각본 『옥환기봉』은 이 부분에 장의 차착이 있어 이 사건들의 순서가 『동한연의』와 같지 않다.

용의 조서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조서가 『후한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옥환기봉』의 적미군 진압 이야기 끝에 제시된 “제 적미 귀항호미 몬져 위엄으로써 뵈시고 후의 어질물 뵈시니 만여 인이 감복호여 후환이 업더라”²⁸⁾라는 서술 역시 『동한연의』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후한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옥환기봉』은 『후한서』보다는 『동한연의』에 근거하여 적미군 진압 이야기의 내용을 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옥환기봉』에서는 『동한연의』에 제시된 대화나 장면들을 대부분 서술자의 간략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광무제의 친정 사실도 생략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적미군 진압에 이은 농우 평정 역시 광무제가 한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문제의 하나이다. 『동한연의』에 따르면 농우에 응거하고 있던 외효는 마원의 권유에 따라 광무제를 섬기기로 하고 자기의 아들을 광무제에게 볼모로 보낸다. 하지만 외효는 스스로 천하의 주인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반표에게 이러한 뜻을 은근히 내비친다. 반표가 만류하였지만 외효가 듣지 않자 반표는 두옹에게 가서 광무제를 섬기라고 권하고, 두옹은 그 말을 받아들여 광무제에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후 외효가 군사를 일으키자 두옹의 요청으로 광무제가 마원과 함께 출정하여 승리를 거둠으로써 마침내 농우가 평정된다. 이러한 『동한연의』의 농우 평정 과정은 『후한서』의 <마원전>, <반표전>, <두옹전>, <외효전> 등에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옥환기봉』에 제시된 농우 평정 과정은 『후한서』가 아닌 『동한연의』의 그것을 직접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문장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부적인 사건의 경과와 내용 등이 서로 부합할 뿐 아니라 <외효전>에서는 외효의 장수 우감을 왕준이 회유하여 귀순하게 하였다고 하였는데²⁹⁾ 『동한연의』와 『옥환기봉』에는

28) 『옥환기봉』 권9, 15면.

29) 『후한서』, 「隗囂公孫述列傳」중 <隗囂傳>, 133면.

모두 채준이 회유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왕준(王遵)이 채준(祭遵)으로 바뀐 것은 <외효전>에 우감을 설득하기 위해 ‘준(遵)’이 편지를 보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동한연의』에서는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왕준이 아닌 채준으로 오인하였고, 『옥환기봉』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농우를 평정한 광무제는 서촉에 응거하고 있던 공손술을 정벌한다. 『동한연의』에 따르면 잠팽이 공손술의 군대와 싸워 이기지 못하자 광무제는 오한을 보내 잠팽과 협세하도록 한다. 이에 오한과 잠팽이 수전에서 공손술의 군대를 물리치지만 광무제의 장수 내흡이 공손술의 자객에게 피살되고, 성도 가까이 진격하던 잠팽 역시 자객에게 피살되고 만다. 한편 오한은 광무제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진격하다가 패배하였으나 이내 승리를 거두고, 공손술은 창에 찔려 죽는다. 이후 광무제는 오한과 유상을 꾸짖어 노략질을 중지시키고, 공손술에게 신하가 되기를 거부하고 절을 지킨 촉의 선비들을 위해 사당을 짓고 치제토록 한다. 『동한연의』에 제시된 이러한 서촉 정벌 과정 역시 『후한서』 열전에³⁰⁾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옥환기봉』에 제시된 서촉 평정 이야기는 작자가 직접 『후한서』를 통해 구성하기보다는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화나 표문의 내용을 줄이고 일부 세부적인 사건을 생략하기는 하였지만³¹⁾ 제시된 사건의 세부적인 경과와 내용이 『동한연의』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환기봉』에서는 『후한서』나 『동한연의』와 달리 광무제가 서촉 평정을 위해 직접 출정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

30) 「馮岑賈列傳」 중 <岑彭傳>, 「隗囂公孫述列傳」 중 <公孫述傳>, 「吳蓋陳臧列傳」 중 <吳漢傳>, 「李王鄧來列傳」 중 <內歙傳> 등.

31) 공손술의 대화와 내흡의 표문을 축약하거나 일부 생략하고 있다. 또 오한과 공손술 장수 사풍과의 접전 장면, 오한이 공손술의 장수 연잠과 대전하다 위기에 빠지는 사건, 연잠이 항복하는 과정 등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어 차이가 있다.³²⁾ 곧 잠팽이 자객에게 죽음을 당한 후 광무제가 제장이 쉽게 축을 파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친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한이 광무제의 조서 내용을 받들지 않고 무리를 하다가 패한 후 광무제에게 직접 나아가 사죄하였다고 하였고, 오한이 공손술의 수급을 광무제에게 있는 군영에 보냈다고 했으며, 또 축의 선비를 위해 광무제가 직접 제문을 짓고 친림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이후 광무제는 교지국과 무릉의 반란을 평정하도록 한다. 이 또한 광무제가 친하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사건들이다. 그런데 그 일들은 모두 마원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마원이라는 인물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지국 여자 징축이 동생 징이와 반란을 일으키고 칭왕하자 광무제는 두옹의 천거에 따라 마원을 복파장군으로 봉해 출정하도록 한다. 마원은 낭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금계성에서 성문을 열고 도주하는 징축을 생포하여 처형한다. 이어 마원은 남은 무리를 모두 진압하고 구리 기둥을 세워 한나라의 경계를 표시하고 돌아온다. 교지국을 평정하고 돌아온 마원은 자기를 찾아온 맹기에게 “스나히 맛당이 변방의 가 말가족으로 죽음을 받디니 ……”³³⁾라며 직접 나서서 북방을 요란하게 하는 흉노를 칠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이후 무릉의 만족이 반란을 일으켜 마원이 자원출정하려 하자 광무제가 마원이 나이가 많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자 마원은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두루 달려서 아직 건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출정을 허락받는다. 마원은 만족을 크게 파한 후 남은 적을 추격하면서 빠르지만 험한 길을 택하여 고생하다가 결국 병들어 죽고

32)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33) 『동한연의』, 151면. 마원의 이 말은 『마원전』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는데(『후한서』, 211면) 이른바 馬革裹屍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옥환기봉』에는 이밖에도 糟糠之妻, 舉案齊眉 등에 얽힌 고사가 삽화처럼 제시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동한연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만다. 광무제가 보낸 양송이 군대를 살피고 돌아와 마원을 참소하자 광무제는 마원에게 내렸던 작록을 거둔다. 이후 주발이 마원의 애매함을 상소하자 광무제가 탄식하며 자신의 처사를 뉘우친다.

이러한 『동한연의』의 내용은 『후한서』 『마원전』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하고 부분적으로 허구적인 전투 장면을 가미하여 구성한 것이다. 『옥환기봉』에는 『동한연의』에 제시된 사건의 경과와 내용뿐 아니라 『후한서』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전투 장면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옥환기봉』은 『후한서』보다는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차이점은 있다. 『옥환기봉』에는 『동한연의』에 제시된 대화나 편지, 그리고 삽입된 글의 내용이 요약, 혹은 생략되기도 하고, 서술자의 간략한 설명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또 장수와 군사들의 출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일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개는 물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반면 『옥환기봉』에서는 마원이 징척과 처음 대적하는 장면에서 징척의 미모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나중에 징척이 붙잡혔을 때 마원을 유혹하여 죽음을 면하려 했던 일에 그럴듯한 근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옥환기봉』의 작자는 광무제가 즉위 후 천하를 통일하고 안정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후한서』보다는 『동한연의』를 직접 수용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동한연의』의 모든 서술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적절한 축약과 생략을 통해 번거로움을 덜기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의 긴밀성을 제고하려 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구조화 양상

앞에서 『옥환기봉』의 한실 회복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 사건들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 어떻게 역사를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한실 회복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황후 폐립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들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실 회복 이야기는 황후 폐립 이야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두 축의 구실을 하게 된다. 이제 두 이야기의 관련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황후 폐립 이야기의 대체적인 내용부터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광무제와 혼인한 광씨는 가난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남편과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긴다. 광씨는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고 싶어 하지만 일찍이 꿈속에서 음씨와의 전생 숙연을 확인한 광무제는 음씨를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 황제에 즉위한 광무제는 광씨와 음씨를 모두 귀인에 봉하고, 이어 음귀인을 황후로 삼으려 하지만 음귀인이 사양하고 태후가 반대하여 결국 광귀인을 황후로 책봉한다. 이후 광후가 미혼약에 본성을 잃은 상태에서 그 보모 윤씨가 음귀인을 갖가지로 모해하여 귀양까지 보낸다. 하지만 결국 광후의 실덕과 윤보모의 음모가 드러나 광후가 폐출되고 음귀인이 황후가 된다.

그러면 광무제의 장안 유학 이야기가 이러한 황후 폐립 이야기와 맺고 있는 관련 양상부터 살펴보자.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옥환기봉』의 장안 유학 이야기는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광무제의 인품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개하여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작자는 거기에 더하여 광무제에게 장안으로 가라고 권한 사람을 엄광이 아닌 장모 광주로 바꾸고, 장안 유학과 관련된 아내 광씨의 태도와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는 농사를 짓던 광무제에게 태학에서 공부하고, 천하호걸들을 사

귀라면서 장안 유학을 권유한다. 그러면서 형 유연이 한실 회복의 대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형제가 어찌 뜻을 달리하겠느냐며 한실 회복의 큰 뜻을 품도록 광무제를 격려한다. 뿐만 아니라 곽주는 유학 경비와 광무제가 없는 동안 집안 살림을 꾸려갈 재물까지 제공한다. 반면 곽씨는 남편이 장안으로 떠날 때 반나절을 울고, 이후에는 장안에 있는 남편을 주야로 걱정하여 숙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남편이 왕망에게 활을 쏘고 붙잡혔다고도 하고 도피하였다고도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자결하려고 하기도 한다.

『옥환기봉』에서 곽주가 장안 유학을 권유하고 지원하도록 한 것은 광무제가 왕망을 격파하는 과정에서 실제 처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는 사실과³⁴⁾ 곽주가 황실의 후예이고 왕가의 딸이지만 예를 좋아하고 검소하여 덕이 있었다는 역사 기록을³⁵⁾ 아울러 고려한 설정으로 보인다. 그리고 곽씨의 태도를 통해 그녀가 남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밝힌 것은 후일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고자 하는 옥망 때문에 폐출된 데 대한 근거를 미리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광무제가 한실 회복의 대의를 품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처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다소의 허물이 있다고 해서 조강지처인 곽후를 폐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하는 논란이 속편과 과생작에서 벌어지게 한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³⁶⁾

34) 광무제는 진정왕 유양의 도움으로 왕망을 격파하고, 이로 인해 그 생질인 곽씨와 혼인하였다(『후한서』, 「任李萬邴劉耿列傳」 중 <劉植傳>, 191면).

35) 『후한서』, 「황후기」, 101면.

36) 예를 들어 속편인 <한조삼성기봉>의 서술자는 곽후가 가난 속에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을 뿐 아니라 친정의 재산까지 기울여 내조했는데도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광무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조삼성기봉>은 광무제와 곽후가 다시 성별을 바꿔 환생하여 곽후가 전생에 당했던 고통을 광무제가 겪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이승복,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 -전편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

어쨌든 이를 통해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광무제의 장안 유학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그것을 한실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그리지 않고 황후 폐립 이야기 내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갖도록 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소장안 전투에서도 확인된다. 작자는 『동한연의』의 내용을 변개하여 이때 광무제가 자기 중형과 말 한 필을 두고 서로 사양하였다고 하였는데 작자는 거기에 더하여 광무제의 어머니 번부인, 누이 백희, 그리고 곽씨 사이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곧 광무제가 내어준 소 한 필밖에 없는 상황에서 곽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타고 먼저 가라 하고 번부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곽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시어머니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시어머니를 구하려 하는 곽씨의 모습은 그녀가 부덕에 충실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소장안 전투는 광무제가 한실 회복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제시하는 한편 곽씨의 부덕을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소장안 전투에 이은 곤양성 싸움은 음씨와 연관되어 있다. 곧 성 안에 갇혀 식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광무제의 꿈에 나타나 상제가 보내는 식량을 가져왔다고 한 부인이 바로 예전에 광무제에게 현몽하여 음씨와의 전생 숙연을 알려준 노고였다는 것이다. 이는 광무제가 천명을 받은 영웅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동시에 광무제와 음씨와의 전생 숙연을 다시 한번 환기함으로써 앞으로 광무제가 곽후를 폐출하고 음씨를 황후로 세운 것이 천정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왕랑과의 대결 역시 황후 폐립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 광무제는 왕랑을 쳐 승리를 거둔 후 곧바로 위의를 갖춰 천정에 가 있던 곽씨를 찾아보고는 다시 군무에 돌아갈 뜻이 없는 듯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

육」3, 청관고전문학회, 2001. 6 참고).

우는 왕랑과의 대결 과정 자체를 변개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광무제와 곽씨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곽씨는 광무제가 음씨와 혼인하는 과정에서 투기를 하여 허물을 지은 상태에서 병을 얻어 친정에 가 있었다. 곽씨는 자기를 찾아온 광무제에게 지난 잘못을 사과하였고, 광무제는 곽씨를 용서하고 군대의 호위 속에 시가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이 이야기는 왕랑을 격파한 광무제가 진정에 이르러 곽씨와 혼인하여 총애가 있었다는 『후한서』의 기록을 근거로 구성된 것이다.³⁷⁾ 그런데 작품 속에서는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친정에 가 있던 곽씨를 광무제가 찾은 것으로 설정하고, 서술자는 “왕랑 치고 도라올 더 진정의 드러 곽후를 만나 총 있던 쥬를 유전훈 비 되니라”³⁸⁾라고 하여 이 일을 통해 광무제가 곽씨를 총애하였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곽씨에 대한 광무제의 마음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후일 곽후의 폐출이 전적으로 광무제의 탓만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광무제 즉위 이전의 한실 회복을 위한 여러 사건들은 때로는 곽씨와, 때로는 음씨와 결부되면서 곽씨의 성격과 그 친정의 도움, 광무제와 음씨의 숙연, 곽씨에 대한 광무제의 태도 등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광무제 즉위 후 전개되는 천하의 통일과 안정을 향한 여러 사건들은 친정에 가 있던 곽씨와 음씨가 돌아와 황후와 귀인으로 함께 궁중에 있게 되면서 본격화되는 그들의 갈등과 관련된다.

먼저 적미 진압의 경우 광무제가 성 밖에 나아가 그들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광경을 태후가 곽후, 음귀인과 함께 구경하다가 두 사람에게 이비를 본받아 결의형제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곽후가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도 왕랑 격파 후 곽씨를 찾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미 진압 이야기 자체를 변개한 것은 아니고 그것에 덧붙여 곽후와 음

37) 光武擊王郎 至眞定 因納后 有寵(『후한서』, 「황후기」, 101면).

38) 『옥환기봉』 권6, 46면.

귀인의 갈등을 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삽화를 굳이 광무제의 귀환을 구경하는 자리에 배치한 것은 작자가 한실 회복 이야기와 황후 폐립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연관되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광무제의 농우 평정은 황후 폐립 이야기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선 중간에 음귀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 어느 날 광무제가 외효와 두옹의 세력을 근심하며 음귀인과 영평공주[백희]에게 소견을 말해보라고 하지만 정사에 간여할 수 없고 또 알지도 못한다며 둘 다 대답하지 않는다. 광무제가 나간 후 영평이 음귀인에게 각자 소견을 말하여 후일 맞나 보자고 하자 음귀인은 외효가 반할 것이며 광무제가 두옹과 협력하여 마원과 함께 친정하면 농우를 평정하리라고 하였는데 이후 이러한 음귀인의 예견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삽화는 음귀인이 부덕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 황후의 자격이 충분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광무제의 농우 평정은 음귀인의 시련이 본격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광무제가 출정한 동안 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광무제를 걱정하여 서늘한 바람을 쏘이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물리치며 음귀인을 꾀박하려 하지도 않는다. 이는 광후가 미혼약에 본성을 잃은 상태에서 현숙한 성품의 일단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³⁹⁾ 이에 따라 음귀인에 대한 모해는 광후의 보모 윤씨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음귀인의 예상대로 광무제가 출정한 동안 그것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윤보모는 음귀인을 해치자고 광후를 졸랐으나 듣지 않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음귀인을 독살하려 하기도 하고, 광후의 명을 가탁하여 음

39) 『옥환기봉』의 작자는 광후의 폐출과 음귀인의 황후 책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그들의 전생 숙연에 의한 필연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면서도 광후를 극악한 인물로 그려 문제를 선악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승복,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 『고전문학과 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참고.

귀인을 불러내 해치려 하기도 하고, 또 요약을 사용하여 음귀인의 얼굴을 망가뜨리려 하기도 하였다. 가장이 없는 동안 처첩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경우를 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옥환기봉』에서도 광무제의 농우 친정은 광후와 음귀인의 갈등이 윤보모에 의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옥환기봉』에 제시된 농우 평정은 『동한연의』를 수용하여 구성되었지만 이와 같이 음귀인의 덕과 지혜를 보여주는 삽화가 삽입되고, 광후의 성격에 대한 서술이 제시되고, 또 음귀인에 대해 거듭되는 모해의 과정이 병치됨으로써 황후 폐립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서축 평정 과정은 앞에서 살폈듯이 『옥환기봉』에서는 『동한연의』의 내용을 수용하되 광무제가 직접 출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과 황후 폐립 이야기를 연결 짓기 위한 것이다. 당시 음귀인은 광후 소생의 황자인 경왕을 독살한 혐의로 태후에 의해 형주에 유배되어 있었는데⁴⁰⁾ 태후가 음귀인을 해배하자 광무제가 서축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직접 음귀인을 찾아 함께 돌아왔던 것이다. 곧 음귀인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광무제의 마음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무제가 서축에 친정한 것으로 변개했던 것이다.

그리고 농우 평정 때와 마찬가지로 서축 평정은 음귀인 자녀들에 대한 윤보모의 모해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광무제가 없는 사이 윤보모는 음귀인의 자녀들을 독살하려 하기도 하고,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 하기도 하였는데 윤보모는 광무제가 돌아오면 이러한 일들이 모두 발각이 될까 두려워 광후를 충동여 옥에 갇힌 자객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광무제의 서축 평정 과정은 『동한연의』의 관련 내용을 수용하

40) 광무제가 영천의 도적을 정벌하러 출정하였기 때문에 태후가 경왕 살해 사건을 처리하여 음귀인을 유배 보냈었다. 광무제의 영천 출정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데 작품에서는 이 사건도 이와 같이 황후 폐립 이야기와 관련짓고 있다.

되 광무제가 친정하였다가 음귀인의 해배 길에 동행한다는 내용의 변개와 음귀인 자녀들에 대한 모해 사건의 병치를 통해 황후 폐립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

교지국과 무릉의 반란 평정의 경우 마원이 서술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황후 폐립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은 없다. 하지만 그 중 무릉 평정 과정에 나타난 마원과 양송의 관계는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나마 황후 폐립 이야기와 연관시키고 있다. 무릉을 평정하다가 마원이 고생 끝에 죽자 광무제는 양송으로 하여금 사정을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양송은 예전에 자기가 마원을 문병할 때 마원이 친구의 아들이라 하여 답례를 하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41) 이때에 이르러 마원을 참소하여 장례마저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양송이 폐출된 곽후의 장녀인 무양공주와 혼인하게 되는 것이다. 음후는 그런 인물로 부마를 삼게 된 것을 탐탁찮게 여기는데 양송은 광무제가 찾을 때 주루에서 만취해 있기도 하고, 광무제가 부운루에서 관동하며 잔치할 때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궁녀들이 춤을 추는 광경을 보고는 발을 구르고 손을 찹추며 만승의 부귀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이는 무양공주가 결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며,⁴²⁾ 그것은 그 어머니 곽후의 불행과 시련을 연상시킨다.⁴³⁾ 따라서 무릉 평정 사건은 양송이라는 인물을 매개로 황후 폐립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41) 이는 『후한서』 「馬援列傳」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로 『동한연의』에도 보인다.

42) 『옥환기봉』에는 곽후 소생의 무양, 관도, 여읍 세 공주가 모두 부족한 남편을 만나 불우한 삶을 살고, 여읍공주는 남편에 의해 죽음까지 당했다고 하였다. 부운루 관동 놀이에서도 남편들의 태도를 바라보는 세 공주는 옥안이 처연하여 장탄식하고, 이후 여읍은 무양과 관도에게 “아들이 모후를 원별하고 신세 괴구호미 빅년의탁을 저버려시니 인간의 괴약홀 거시 업(권27, 29~30면)”하며 살거나 죽거나 서로 함께 모여 의지하자고 한다.

43)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옥환기봉』의 파생작인 『취미삼선록』은 곽후의 세 공주와 곽후의 불행을 중점시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작자는 한실 회복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의 일부 내용을 변개하기도 하고, 거기에 황후 폐립 이야기와 관련된 새로운 삽화를 첨가하거나 삽입하기도 하고, 한실 회복 이야기의 사건을 황후 폐립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건과 병치시키기도 하고, 또 두 이야기를 매개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기도 하여 한실 회복 이야기와 황후 폐립 이야기를 서로 연결 짓고 있다.

4. 역사 수용 양상의 의미

주지하다시피 고전 장편소설의 여러 작품에는 중국의 역사가 수용되어 있다. 중국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거나 중국의 역사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수준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는 어느 한 작품을 대상으로 중국의 역사가 수용된 구체적인 양상을 구명하여 창작방법을 밝히거나⁴⁴⁾ 그렇게 수용된 역사가 작중 인물의 삶의 방식이나 운명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기도 하고,⁴⁵⁾ 동일한 역사적 사건이 여러 작품에 달리 수용되는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서술의식, 서사세계 등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검토하기도 하고,⁴⁶⁾ 역사 수용 방식에 대한 유형 분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⁴⁷⁾

이러한 연구들은 대개 작품에 수용된 중국의 역사를 정사를 중심으로

44)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관악어문연구』18, 서울대, 1993.

45)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46)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명사 수용과 의미 -정난지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2.,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 〈옥호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 『한국문화』2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47) 임치균, 앞의 글, 154~5면.

검토하면서 실제 작품 창작 과정에서는 연의소설류와 같은 자료들이 역사 수용의 통로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옥환기봉』은 역사서뿐 아니라 연의소설을 역사 수용의 통로로 삼으면서 경우에 따른 선별적인 수용을 하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의 역사 수용에 대한 검토가 이 작품뿐 아니라 고전 장편소설의 역사 수용 방식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이 작품의 역사 수용 양상에 담긴 의미를 살피기로 한다.

우선 이 작품의 역사 수용 양상에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작자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의 허구적 내용보다는 『후한서』의 사실 기록을 최대한 수용하려 한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살핀 기병과 초기 전투의 과정만 보더라도 『동한연의』에서는 광무제가 큰 잔치를 열어 사람을 모으고, 병장기를 마련하려다 위기에 빠지고, 기병 직후 극양성을 빼앗는 등의 과정이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옥환기봉』에서는 이러한 허구적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도주했던 군사들이 광무제를 보고 투군했다거나 광무제가 승전을 해서 얻은 재물을 군사들에게 나눠주었다는 『후한서』의 기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 『동한연의』에는 광무제의 숙부 유량이 한실 회복을 바라는 강개지사로서 제시된 데 비해 『옥환기봉』에서는 『후한서』의 기록을 받아들여 유량이 광무제의 기병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곤양성 전투에서도 광무제가 등우의 말을 듣지 않고 적정을 살피려 성 밖으로 나갔다가 위기에 빠졌다거나 포위된 상황에서 장수를 거짓으로 항복을 하게 하여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동한연의』의 서술 대신 『옥환기봉』은 적장 엄우가 광무제를 칭찬하고, 광무제가 제장을 독려했다는 『후한서』의 기록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 기록을 중시하는 작자의 서술 태도는 이후의 하북 진무나 황제 즉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⁴⁸⁾

48) 『동한연의』에서 광무제가 직접 왕망을 처형하였다거나, 제장들의 즉위 요청 시

그런데 즉위 이후의 적미군 진압, 농우와 서촉 평정, 교지와 무릉 평정 등의 사건은 『후한서』보다는 『동한연의』를 수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이르러 작자의 서술 태도가 변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사건들에 대한 『동한연의』의 내용이 『후한서』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자로서는 굳이 『후한서』를 별도로 수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작자가 아무리 역사 기록에 충실하고자 해도 『옥환기봉』 자체가 이미 허구에 바탕을 둔 소설이고, 또 『후한서』뿐 아니라 소설인 『동한연의』를 아울러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실 회복 관련 사건들의 『후한서』기록을 최대한 수용하여 그와 관련된 『동한연의』의 허구적 내용을 대체하고 있는 점, 『동한연의』에 제시된,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자극할 만한 허구적인 전략이나 전투 장면들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것들을 생략하거나 대폭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개를 가해서라도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든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⁴⁹⁾ 등을 고려할 때 작자가 역사 기록을 존중하여 그것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작자의 태도는 비단 한실 회복 이야기뿐 아니라 작품 전체에 대한 작자의 기본적인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작자는, 곽후는 실덕을 한 반면 음후는 황후가 될 만한 자질과 숙덕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는 『후한서』의 단편적인 기록을⁵⁰⁾ 허구와 상상을 통해 구체

기를 앞당기면서 그 횡수를 빈번하게 제시하려 한 것은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옥환기봉』에서 그러한 서술 대신 「광무제기」의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9) 광무제가 왕랑을 파한 후 곽씨와 혼인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여 그것을 광무제가 왕랑에게 승리한 후 병으로 친정에 가 있던 곽씨를 찾아가 위로하고 정을 나누었다는 삽화를 제시해서라도 반영하려고 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50) 『후한서』 『황후기』에서는 곽후에 대해 광무제의 은총이 점점 쇠해지자 자주 원망하는 마음을 품다가 폐출되었다고 하였고, 음후에 대해서는 광무제가 처음 황

화한 황후 폐립 이야기를 길게 제시한 후 음후가 자색으로 광무제의 총애를 잃어 황후가 되었고, 그래서 광후 소생의 태자도 그 위를 잃었다고 세상에서 비난하니 가탄스럽다는 서술을 첨부하고 하였다.⁵¹⁾ 이는 작자가 세상의 통념을 비판하고 황후 폐립과 그에 대한 광무제의 처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후한서』의 시각을 받아들여 역사 기록에 공란으로 남아있는 황후 폐립의 경과를 상상과 허구를 통해 보충하려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⁵²⁾ 곧 황후 폐립 이야기와 관련된 작품의 창작 동기 자체가 역사 기록의 보충과 구체화에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자는 작품의 서술 체제를 마치 기전체(紀傳體)의 역사 서술 방식처럼 구성하고 있다. 곧 작품의 본문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 음후와 그 친정 형제, 그리고 광무제의 자녀들에 관한 전을 뒤에 첨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의 내용을 본기(本紀)처럼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작자가 이 작품의 창작을 또 하나의 역사서술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³⁾

작자가 이처럼 기존의 역사 기록을 보충하는 또 하나의 역사 서술을 한다는 입장에서 황후 폐립 이야기와 작품 전체의 서술 체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한실 회복 이야기에 있어서도 역사 기록을 중시하려는 작자의 서술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 기록을 충실히 반영하려 하면서도 작자는 무엇 때문에 다시 『동한연의』를 수용한 것일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후를 정할 때 광씨에게 아들이 있음을 들어 사양하였는 사실과 함께 그 성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논찬을 통해서도 광무제가 광후를 폐한 후에도 예로 대접하고, 그 친척에게까지 은총을 더했다 하여 황후 폐립에 대한 광무제의 처사가 결코 부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후한서』, 『황후기』, 101~2면 참고).

51) 『옥환기봉』 권29, 40면.

52) 이승복(2000), 175면 참고.

53) 위의 글, 168면 참고. 규장각본의 경우에는 ‘권지이십구 종’이라는 제목을 권수에 붙여 권29에서 작품의 본문 내용을 마무리한 다음 끝 권인 권30에 음후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전을 수록하고 있다.

역사 기록 자체가 전체는 물론 각 사건별로도 완결된 서사성을 띠기 어렵기 때문에 서사적 완결성을 갖춘 『동한연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동한연의』를 참고하여 수용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여기에서 한실 회복 이야기의 역사 수용이 지닌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의 부각이라 할 수 있다.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 부각은 무엇보다 『후한서』의 기록을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후한서』가 한실을 회복한 영웅이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광무제의 태도와 행위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⁴⁾ 이러한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 부각은 『동한연의』의 수용에서 보다 분명히 확인된다. 그것은 『옥환기봉』의 작자가 『동한연의』의 한실 회복 과정에 제시된 복잡한 사건과 다양한 전술과 전략, 그리고 수다한 전투 장면 등을 대거 생략하면서도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하거나 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안 유학 이야기에서는 『동한연의』에 제시된 광무제의 성격을 영웅적 면모에 어울리도록 바꾸고, 소장안 전투에서는 『동한연의』에 제시된 삽화를 형제간의 우애와 광무제의 인품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변용하였으며, 곤양성 싸움에서는 『동한연의』의 복잡한 여러 사건들을 대거 생략하면서도 상제가 식량을 보내주었다는 삽화는 그대로 수용하여 광무제가 천명을 받은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외의 하북 진무와 왕랑과의 대결, 황제 즉위 등의 과정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작자는 『후한서』와 『동한연의』를 바탕으로 한실 회복 이야기

54)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작자가 『후한서』를 적극 수용한 데에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 부각에 대한 의도도 함께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를 구성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한편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을 드러내는 서술이나 삽화를 집중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광무제의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옥환기봉』의 역사 수용에는 정보가 중심일 때에는 『후한서』를, 극적이고 흥미로운 부분을 위해서는 『동한연의』를 이용하는 것⁵⁵⁾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작자는 무엇 때문에 광무제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려고 하였던 것일까. 광무제는 작품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광무제를 긍정적으로 그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작자는 광무제가 광후를 폐하고 음귀인을 황후로 세운 것이 세상의 통념처럼 광무제가 음귀인의 자색에 미혹되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처럼 황후 폐립이 음귀인에게 미혹된 광무제의 황포 때문에 빚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광무제가 너그러운 인품을 지닌 영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작자가 황후 폐립 이야기의 구성에 많은 공을 들이면서도 광무제의 한실 회복 이야기를 별도로 구성하면서 그것을 단순한 시대 배경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 기록에 대한 충실성,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 부각 이외에 이 작품의 역사 수용 양상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작자의 창작 역량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옥환기봉』에서는 한실 회복 이야기와 황후 폐립 이야기가 서로 교체되면서 작품을 이끌어가다가 한실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게 중심이 황후 폐립 이야기 쪽으로 기울어진다. 또 세상의 통념을 비판하면서 음후가 황후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작자의 진술은 이 작품의 일차적인 창작 동기가 황후 폐립 이야기의 구성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실 회복 이야기를 작품의 시대 배경으로 보기에 그 비중이 너무 크

55) 임치균, 앞의 글, 144면.

다. 따라서 이 작품은 한실 회복 이야기와 황후 폐립 이야기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는 광무제 때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두루 포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을 부각시킨 한실 회복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후한서』의 시각에 입각하여 작자가 나름으로 구성한 황후 폐립 이야기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황후 폐립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광후의 성격과 그녀에 대한 광무제의 태도, 음후의 성품과 지혜, 윤보모를 매개로 한 광후와 음후의 갈등 등 황후 폐립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조건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옥환기봉』은 단순한 두 이야기의 조합에 머물지 않고 두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탄한 작품 구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나름대로 재해석하면서 역사 기록을 보충하겠다는 작자의 의식도 문제적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작자의 능력 또한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작자는 중국의 역사를 수용하였지만 그것을 단순히 차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역량에 따라 탄탄한 구조를 갖춘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해 내었던 것이다. 이는 18세기 우리 고전 장편소설의 창작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5. 맺음말

18세기경에 창작된 장편소설인 『옥환기봉』은 광무제의 한실 회복 이야기와, 광황후가 폐출되고 음귀인이 황후가 되는 황후 폐립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이 중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먼저 역사가 적극적으로 수용된 한실 회복 이야기

를 대상으로 역사 수용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황후 폐립 이야기와 어떻게 얽혀 작품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실 회복 이야기를 이루는 각 사건들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삽화의 연속처럼 제시되어 있는데 기병에서부터 황제 즉위까지의 사건들은 주로 『후한서』와 『동한연의』를, 즉위 이후의 사건들은 대부분 『동한연의』를 통해 중국의 역사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들은 일부의 내용을 변개하거나 새로운 삽화를 삽입, 혹은 첨가하거나 매개 인물을 통하거나 또는 시간적 병치를 통한 관련을 맺도록 함으로써 황후 폐립 이야기와 직, 간접으로 연관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수용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작자가 역사적 기록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자가 한실 회복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후한서』의 기록을 최대한 수용하려 했다거나 『동한연의』만의 허구적인 전략이나 전투 장면을 대폭 생략하고 있다거나 작품에 미리 설정된 상황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개를 가해서라도 그것을 수용하려 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근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황후 폐립 이야기와 관련된 작품의 창작 동기라든지 기전체와 같은 작품의 서술 체제를 볼 때 작품 전체에 대한 작자의 기본적인 서술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수용 양상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작자가 광무제의 인품과 영웅성의 부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이는 그러한 시각에 입각해 기술된 『후한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한연의』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성격을 지닌 삽화나 서술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광무제의 긍정적인 면모는 결국 황후 폐립 이야기와 결부되어 황후 폐립과 관련된 광무제의 태도와 처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작자의 창작 역량 또한 역사 수용 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실 회복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후한서』의 시각에 입각하여 작자가 나름으로 구성한 황후 폐립 이야기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황후 폐립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인물들의 성격, 태도, 갈등 등 황후 폐립 이야기의 전개에 필요한 조건과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옥환기봉』은 두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탄탄한 작품 구조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사를 수용하여 작품화하는 작자의 능력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작자의 창작 역량은 물론 당시 고전 장편소설의 창작 수준과 역사 수용 방식을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 『동한연의』, 박재연의 교주, 학교방, 2007. 7.
- 范曄 撰, 李賢 等注, 『後漢書』, 경인문화사, 1975.
- 사마광, 『자치통감』5, 권중달 역, 도서출판 삼화, 2007.
- 옥환기봉(30권 15책), 서울대 규장각 소장 국문필사본.
- 옥환기봉(8권 8책, 낙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문필사본.
- 『통감절요』3·4, 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2007.
- 김중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435~471), 『고소설의 저작과 전과』,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아세아문화사, 1994.
-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163~190), 『관악어문연구』18, 서울대, 1993. 12.
-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명사 수용과 의미 -정난지변을 중심으로-」(191~216), 『한국 고전연구』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12.
-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08. 6.
- 송진환, 『조선조 연의소설의 세계』, 전남대 출판부, 2003.
-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이승복, 「『옥환기봉』과 역사의 소설화」(157~183), 『선청어문』28, 서울대, 2000. 3.
- _____, 「〈한조삼성기봉〉의 구조와 성격 -前篇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204~225), 『고전문학과 교육』3, 청관고전문학회, 2001. 6.
- _____,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283~322), 『고전문학과 교육』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8.
- _____, 「『옥환기봉』의 인물 형상과 작가의식」(463~499), 『고전문학과 교육』15,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2.
- 임치균, 「18세기 고전 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131~162), 『한국고전연구』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_____, 「『육환기봉』 연구」(28~50), 『한국사상과 문화』18,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12.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조광국, 「고전소설에서의 사적 모델링, 서술의식 및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 - <육호빙심> <쌍렬옥소삼봉> <성현공숙렬기> <『쌍천기봉』을 중심으로-」(55~81), 『한국문화』2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1. 12.

지연숙, 「<육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155~183),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12.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s of Historical Acceptance in *Okhwangibong*

Lee, Seung-Bok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the aspects and meanings of historical acceptance in *Okhwangibong* written in about 18th century in Korea. *Okhwangibong* deals with the historical events in the Later Han of ancient China, that is to say the Emperor Kwangmu's recovery of the Han Dynasty and the Empress Gwak's banishment and the royal harem Eum's accession to the queen consort.

The story of the recovery of Han accepts the historical events through *Huhanseo*, the history book of the Later Han and *Donghanyeoneui*, historical novel of the Later Han. And it is connected the story of banishment and accession of the queens with the changes of the contents in *Huhanseo* and *Donghanyeoneui*, and the insertions of fictional contents, etc.

We can find the several meanings in these aspects of the historical acceptance in this work. First of all we can ascertain the author's efforts for the reflection of historical facts and the emphasis of Kwangmu's dignity and his heroic feature. And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s problem consciousness and creative capability are not poor absolutely.

I anticipate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acceptance in *Okhwangibong*, and the writing methods of

Korean classical long novel in the 18th Joseon Dynasty.

Key Words : Korean Classical Long Novel, Okhwangibong, Huhanseong,
Donghanyeoneui, Historical Acceptance